

전주형 뉴딜 성공 추진 위한 협력 논의

시, 전주 찾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논의... 조대업 위원장 "남다른 지원·협조 아끼지 않을 것"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업)가 20일 전주를 찾아 전주형 뉴딜 성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명규 전주부시장은 이날 조대업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전환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행복도시'를 비전으로 ▲디지털 핵심인재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뉴딜 ▲2050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사회연대와 협력, 협업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 중심도시 구현을 위한 상생연대 뉴딜 등 3대 정책의 전주형 뉴딜을 설명한 뒤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대업 위원장은 "전주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 기획위원회 차원에서 남다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전북 대토론회 일정으로 전주를 찾았다.

최 부시장은 "한국판 뉴딜과 전주형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국가 정책에 발맞춰 내실 있는 전략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조대업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과 최명규 전주부시장이 전주형 뉴딜 성공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전주시 제공)



전주시는 20일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 중인 서노송예술촌 일원에서 부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문화 공간 탐방 교육인 '성평등 나들이, 성큼'을 진행했다.

부부의 날 기념 '성평등 나들이, 성큼'

전주시, 서노송예술촌 일원서 부부공무원 대상 진행

부부의 날(5월 21일)을 맞아 전주시 공무원들이 성평등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현장탐방에 나섰다.

시는 20일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 중인 서노송예술촌 일원에서 부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문화 공간 탐방 교육인 '성평등 나들이, 성큼'을 진행했다.

'둘(2)이 만나 하나(1)가 된다'는 의미의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이날 교육에서 참석자들은 서노송예술촌에 있는 성평등전주 커먼즈필드(주민협약소통공간)와 노송너우스 박물관(마을사 박물관)을 찾아 성평등 조직문화를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또, 예술가책임인 물결서사에서 성평등 관련 도서를 구입하는 등 성평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서노송예술촌을 직접 방문해보니 성매매집결지라는 선입견이 사라지는 계기가 됐다"면서 "성평등 실현의 거점인 장소를 부부가 함께 방문해 더욱 의미가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명애 전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탐방 교육을 통해 참석한 부부공무원들이 부부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에도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고령층·돌봄인력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주시보건소, 5월 말~6월 계획 발표... 만 65~74세 27일부터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65~74세 노인 과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는 오는 27일부터 가까운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어 다음 달 7일부터는 만 60~64세 시민과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돌봄인력, 사회필수인력·보건요인·돌봄종사자 등 2분기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이 진행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월 말~6월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만 60~74세 고령층 등 11만여

명의 1차 신규접종대상자들은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백신 접종을 위해 사전에 예약을 해야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을 이용해 예약·변경 등이 가능한 온라인 방식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전화로 예약서비스를 지원하는 콜센터 방식 ▲온라인이나 우선 예약이 모두 어려운 노인 과 장애인을 위한 주민센터 전담자를 통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지난 6일부터 우선 70~74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다음 달 3일까지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시민들

을 대상으로 한 2차 접종에 돌입했다. 대상은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고위험의료기관 종사자 등이다. 의료인과 병원 입소자는 자체 접종 등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는 보건소에서 현장을 방문해 접종을 실시한다.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은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을 받으면 된다.

예방접종센터를 통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계속된다. 시는 5월에 화산에 방접종센터에서 만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안정적인 2차 접종 시행에 집중하고, 오는 24일부터 1차 접종을 재개해 6월 말까지는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는 신축 덕진보건소 건물에 마련되는 덕진예방접종센

터에서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학교 및 돌봄공간 교사, 보건요인과 사회필수인력 등 2분기 접종 대상군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제외대상인 30세 미만의 대상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65세 미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입소·종사자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1차 대응요원, 75세 이상 노인 등 5만1,0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며, 이 중 1만7,000여 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집단면역 확보로 코로나19 대유행을 멈추고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필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예방접종 과정에서 한 분의 시민도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덕진보건소 신축건물 활용 예방접종센터 추가 운영

6월 중순부터 기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대상자 중 30세 미만 대상 화이자 백신 접종 예정

전주시가 완산구 권역의 화산체육관에 이어 덕진구 권역에도 시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예방접종센터를 가동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다음 달 중순부터 우이동 명주골네거리 인근 덕진보건소 신축건물(우이길 20)을 덕진예방접종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접종대상자별 등록과 예약,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산예방

접종센터와 덕진예방접종센터의 접종대상을 구분해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75세 이상 노인 등은 화산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권장되지 않는 30세 미만 등 신규접종대상자는 덕진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받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덕진예방접종센터는 기존

사회필수인력 등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대상자 중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덕진예방접종센터를 찾는 장애인의 예방접종 편의를 위해 건물 1층에 장애인 전용 예방접종구역을 설치하고 동선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반면 비장애인의 경우 건물 밖에서 대상자 확인 및 예진표를 작성한 후 2층으로 이동해 의사에진 후 백신접종을 받고 접종내역 전산입력을 마친 다

을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에서 대기 후 출구 앞에서 접종내역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시는 접종센터 곳곳에 질서유지요원과 안내요원을 배치해 접종대상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향후 덕진예방접종센터 개소에 앞서 자체 모의훈련과 전라북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새내기 예방접종센터 개소와 안전한 접종 시행을 위해 민반의 준비에 임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올해 선정된 공동체 대상 현장컨설팅 실시

전주시가 올해 활동을 시작한 새내기 공동체들의 성장을 돕고 나섰다.

시는 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공동체의 성장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올해 공동체 활동에 첫발을 내딛은 39개 온두레공동체(디딤단체)와 10개 아파트 공동체 등 49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이어진 현장컨설팅에서 공동체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공동체의 목표 설정 ▲공동체 회원 간 소통 ▲역할분담의 중요성 등을 일깨워주는 등 새내기 공동체의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새내기 공동체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보조금 집행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보조금 회계 기준

및 업무 매뉴얼' 책자를 배부하고, 회계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시는 향후에도 공동체가 활동하면서 겪게 될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별로 활동가를 배치해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동영상 제작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체별 특성에 맞춰 전문가 개별 컨설팅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에 참여한 '진기지' 공동체 대표는 "온두레공동체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야할지 다소 모호했었다"면서 "이번 컨설팅이 우리의 정체성과 향후 활동방향을 확고히 확립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